

## 미셸 푸코와 건축 역사서술

-테크네의 일반사에 자리잡은 건축의 역사-

## Michel Foucault and historiography of architecture

-History of architecture back in the general history of techne-

신건수\*

Shin, Gunsoo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rief statement about the historiography of architecture by the French philosopher Michel Foucault and the possibility of a historical description according to his method. His historiographic propositio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back in (the) general history of techne," is a novel idea not only for his contemporaries but also for us. To grasp the meaning of Foucault's proposition, we begin by considering his position with regard to architecture or architectural space in certain discussions till then. We then compare his standpoint on historical recognition with other viewpoints about historical narratives that can be found in books written since 1930. Finally, we interpret the concept of "techne" in the sense of "relation," whose objectivation is for him his concern on architecture and examine possible aspects and their limits.

주제어 : 역사서술, 미셸 푸코, 테크네, 근대건축운동

Keywords: Historiography, Michel Foucault, Techne, Modern Movement of architecture

## 1. 서론

1982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 Foucault)는 미국 인류학자인 폴 레비나우(P. Rabinow)와 가진 인터뷰<sup>1)</sup>에서 특정 건축가(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를 언급하고 건축사서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 이 철학자는 건축과 관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입장과는 매우 다른 케도에 있었다. 특히 이 인터뷰에서 당시 '해방의 건축'을 추구하며 르 꼬르뷔지에를 '은밀한 스탈린주의자'로 보는 일련의 건축가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가 제시한 건축 서술방식('테크네 Techne의 일반사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현재에도 매우 낯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건축에 대한 일관적인 전체사 서술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푸코의 건축 이해를 살펴보고

그가 제시한 서술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930년대 처음으로 몇몇 역사가들이 근대건축운동을 하나의 실체로 다루면서 본격적인 현대 건축사 서술의 시대를 열었다. 곧이어 그 서술방식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면서 수정된 방식이 나타나지만 초기 서술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1970-80년대 역사학 전반에 등장한 거대서사에 대한 비판이나 만프레도 타푸리(M. Tafuri)의 '이테올로지 비평'은 건축사 서술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었다. 이후 나타난 서술이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건축영역의 내적 담론으로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푸코가 건축을 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외부적이다. 즉 건축이 자체의 독자적인 생명력의 자율적인 발전과정으로 여기는 것과 거리가 있으며 외부적인 것과의 관련성으로 파악한다. 그에 게 건축은 내재적인 목적이나 독자적인 진화과정을 지닌 것이 아니며 인간관계의 기술(테크네)의 객체화(objectivation)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푸코는, 그를 잘 이해한 친구였던 한 역사학자가 말한 것

\* Corresponding Author : ttanc@naver.com

1) 이 인터뷰의 번역은 현재 2 종류가 있다. 마이클 헤이즈(Michael Hays)의 『68년 이후의 건축이론』(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과 최근 이상길이 옮긴 『헤테로토피아』(문학과지성사, 2014)에 각각 수록됐다.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으로 후자의 번역을 참고했다. 그러나 번역 내용의 일부는 수정했다.

처럼 ‘담론(Discourse/*Discours*)’이나 ‘권력(Power/*Pouvoir*)’<sup>2)</sup>의 철학자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관계’의 철학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sup>3)</sup>

푸코의 이런 입장은 구체적인 건축 서술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게 남는다. 게다가 푸코의 인터뷰가 주는 정보가 매우 한정되고 추가 언급이 없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푸코의 건축 역사에 대한 관점이, 인터뷰에서 건축·도시 공간에 대한 몇몇의 과거 연구들을 언급한 것처럼 그의 전반적인 연구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관련된 여러 글들을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푸코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푸코가 건축과 직접적으로 조우하는 연구들, 건축가를 저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글, 푸코의 역사관을 잘 이해한 동료 폴 벤느(P. Veyne)의 글<sup>4)</sup>, 그리고 인터뷰가 실렸던 시기인 1982년 전후로 매진했던 연구들<sup>5)</sup>은 여러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푸코의 역사에 대한 일반 입장(고고학 혹은 계보학)을 직접 다루는 대신 건축과 공간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다. 사실 바슐라르(G. Bachelard), 깡길렘(G. Canguilhem), 쿠아레(A. Koyré) 등의 단절적인 역사 인식과 푸코의 고고학이 매우 밀접하고 그의 동료가 푸코의 저작 모두를 니체(F. Nietzsche)의 도덕의 계보학의 연장이라 볼 정도로<sup>6)</sup> 그 관계 역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푸코가 역사 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했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서술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sup>7)</sup>

2) 원어 병기는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불어를 표기하며 혼동을 피하고자 불어를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3) 벤느에 따르면 그러한 “관계”는 사람들이 ‘구조’로 지칭했던 것으로 푸코는 “권력을 관계의 원초적인 용어들, 권리의 주제, 국가, 법, 주권자, 등에서 출발하지 않고 관계 자체에서 출발하여 연구한 것이다.(폴 벤느, 이상길 역,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Foucault revolutionne l'histoire*)”, in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의 부록, 새물결, 2004, p. 499)

4) 폴 벤느,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Foucault revolutionne l'histoire*)」, *ibid.* 폴 벤느는 푸코의 동료로 특히 성의 역사 1권 이후 본 발표가 다루는 시기의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루어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줬고 푸코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했다.(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나남출판, 2004, 문경자·신은영 옮김, p. 22). 그리고 벤느는 최근에 푸코에 관한 책을 저술해서 그의 생각에 관한 이해를 넓혀줬다(폴 벤느, 『푸코, 사유와 인간』, 이상길 역. 산책자, 2009)

5) 특히 『성의 역사 2,3』과 『푸코의 롤레주 드 프랑스 강연집(1977-1983)』를 참고하라.

6) 폴 벤느, 『푸코, 사유와 인간』, *Ibid.*, p. 173. 푸코 스스로 니체의 계보학에 대한 글(“니체, 계보학, 역사”)을 썼다.(이광래, 『미셸 푸코 :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민음사, 1989)에 번역 수록됨)

7) 푸코의 역사 접근 방식에 관한 중요한 것은 그가 역사학자들과의 토론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역사연구 방법(계보학)을 구체적으로

본 논고는 푸코의 건축사 서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을 부각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지닌 의미와 실제 저술 가능여부,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sup>8)</sup> 연구는 다음의 3가지로 이루어졌다. 우선 건축과 도시에 관한 푸코의 여러 연구를 나중의 인터뷰에서의 서술 언급과 비교하여 건축사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기존의 건축사 서술을 검토하여 푸코의 ‘외부적’관점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푸코의 인터뷰를 검토하여 그의 역사서술의 제안 내용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파편화된 여러 글들을 모아서 그가 말한 “테크네의 일반사”의 의미와 그에 따른 건축사 서술의 모습을 가늠해 볼 것이다.

## 2. 푸코와 건축의 조우

푸코가 인터뷰를 하던 시기는 『말과 사물(1966)』로 대표되는 담론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초기와 자신의 첫 저서라고 지칭한 『감시와 처벌(1975)』에서 한 ‘지식-권력’을 분석한 후, 유일하게 단행권 출간이 없던 통치성(*governmentality/gouvernementalité*) 연구를 마무리하고 성과 주체의 문제를 다루던 『성의 역사 2·3』를 저술하고 있던 상태였다. 전 생애 걸쳐 푸코는 여러 번 건축 혹은 건축 공간의 주제와 만났다. 그가 건축물을 분석한 경우도 있고 건축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도 했으며 건축가들의 초청으로 강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접촉에서 건축과 공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었으나 이들 사이에 다루어지는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상의 건축에 대한 입장을 파악 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hétérotopie*) 강연을 회상하며 거론했고 파놉티콘과 통치성과 관련한 건축과 도시에 대해 언급했다. 일찍이 공간에 관한 초기 주제인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미 세 가지 공간 대상(헤테로토피아, 유토피아, 일반 공간)이 설정되며 이들 각각은 차례로 다루어지게 된다.<sup>9)</sup> 다시말해 이 장에서는 푸코의 건축사 서술과 관련한 공간의 건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시했다.(이 토론은 나중에 책 *L'impossible prison*으로 출간됐다). 세부 내용은 2-2장과 주14 참고.

8) 즉, 푸코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어 건축사 서술에서 나타난 여러 푸코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9) 실제 이런 분석 대상 공간의 변화는 푸코의 연구 주제와 철학적 태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2-1 헤테로토피아<sup>10)</sup>와 바깥 공간

『말과 사물』이 출간되고 많은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무렵 푸코는 건축가 이오넬 샤인(I. Schein)의 초대로 건축연구회 (*Cercle d'etudes architecturales*, 회장 장 뒤 뷔송 J. Dubuisson)에서 “다른 공간들(*Des autres espaces*)”을 강연했다. 이 내용은 몇 달 전에 두 번에 걸쳐 한 라디오 방송(*Culture francaise*)의 강연(“헤테로토피아 *Les héterotopies*”와 “유토피아적인 몸 *Le corps utopique*”)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당시는 68운동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좌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이상적인 건축으로 언급되던 고댕(Jean Baptiste Godin)의 파밀리스테르(*Familistère*)에 관심을 가지며 노동자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던 시기였다. 이들은 푸코에게 당시 도시와 건축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아마도 마르크스적인) 대안을 바랐겠지만 강연은 이들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접근이었다. 푸코의 논의는 많은 오해를 낳거나 거부됐고 푸코도 그 후 약 20년 동안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sup>11)</sup>

이 강연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일반 공간 바깥에 있는 두 공간인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이다. 유토피아가 실제 현실화를 거치지 않은 공간으로 “완벽하거나 사회에 반”하는 것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실질적인 위치를 가지지만 일반적 공간 배치의 쓰임과 다른 경험이 이루어지는 바깥의 공간(*Espace du dehors*)이다. 헤테로토피아는 바슐라르가 보여준 풍부함을 지닌 내부의 공간(*Espace du dedans*)를 다루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둘러싼 많은 배치 중에 “관계들의 총체를 중단시키거나 중화 혹은 전도시키는 양태를 보이는 것들”이며 “어떤 면에서는 다른 모든 배치들과 관계를 맺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어긋나는 것들이다.<sup>12)</sup> 결국 정상(일반) 사회의 공간 배치 바깥에 위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성의 외부에서 이질적(hetero)으로 있던 광기(*folie*)를 연상시킨다.<sup>13)</sup>

10) 푸코에게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말과 사물』의 서문에서 그 유명한 보르헤스가 창안한 있을 법하지 않은 중국백과사전에 나오는 동물 분류를 설명하는 부분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헤테로토피아는 공간이 아닌 담론의 이질성을 다뤘다.(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나남 출판, 2012, pp. 11-12)

11) 실제 푸코는 자신이 건축가의 관심사에 무지하다고 말했다.(다니엘 드페르, “헤테로토피아-베니스, 베를린, 로스앤젤레스 사이, 어떤 개념으로의 여행,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p. 95) 한편, 이런 상황은 혁명을 추구하던 영화감독 장뤽 고다르(Jean-Luc Godard)가 지식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책인 『말과 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여겨서 자신의 영화(“중국 여인 *La chinoise*”, 1967)에서 그 책에 토마토를 던지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Ibid, p. 105)

12) Ibid, pp. 44-47.

13) 다니엘 드페르(D. Defert)가 언급했지만(다니엘 드페르, Ibid.,

한편, 두 가지의 형태, 즉 위기 *crise*(변화/달라짐)와 이탈 *déviatoin*(회복가능/일시적)적인 속성으로 나누져 더 다루어졌을 법한 헤테로토피아의 역사는 곧 다른 주제, 지식-권력의 장을 다루면서 근대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담은, 다른 바깥의 공간인 유토피아 건축(파놉티콘) 분석으로 대체된다.

2-2 유토피아 공간-파놉티콘

푸코의 건축분석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파놉티콘 분석일 것이다. 지식-권력의 결합 양태를 드러냈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의 배치와 작동방식을 드러내는 건축으로 소개된 제러미 벤담(J. Bentham)의 파놉티콘은 실제 감옥 건축의 형태와는 거리가 먼, 지어지지 않은 유토피아적인 계획안이다. 『감시와 처벌』이 출간되고 3년 후에 이루어진 역사학자들과의 논쟁에서 파놉티콘이 실행되지 않은 실패한 공간인데 어떻게 실제의 권력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 질문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푸코의 작업을 역사서술 작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푸코도 이를 인정하며 다른 역사학과는 방법론이라 언급했기 때문이다.<sup>14)</sup> 한편, 푸코의 대답은 벤담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실화 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감옥 보다 더 분명하게 권력-지식의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봤다. 그런 의미에서 푸코가 근대를 감시로 규율화된(*discipline*) 사람들의 사회로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규율(*disciplinaire*) 사회, 즉 규율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임을 말한다. 규율로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건축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사람의 실천에 따른 것이며, 이런 건축적 이상과 사람의 실천과의 괴리는 1982년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푸코는 파놉티콘 그리고 감옥 건축을 분석하면서 그 각각에 숨겨진 내용을 추적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생산하게 만드는 가능성의 조건(지식-권력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p. 114-118) 헤테로토피아의 초기 수용자들인 이탈리아 베니스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의 해석은 모호하고 다른 맥락에서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푸코와는 다른 것이 됐다.(이들의 연구는 다음의 책으로 나왔다-M. Cacciari, F. Rella, M. Tafuri, G. Teyssot, *Il dispositivo Foucault*, Venise, Culva, 1977)

14) 푸코는 감옥의 탄생(『감시와 처벌』의 부제)를 지식과 권력의 결합한 일종의 사건으로 인식하며 이 사건에 관련된 요소만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복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다이어그램(*diagram/diagramme*)을 드러내는 것으로 봤다. 이 질문과 대답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Michel Foucault, et al., *L'impossible prison: Recherches sur le systeme penitentiaire au XIXe siecle*, Edition du seuil, Paris, 1980. 부분적으로는 다음의 책에서 소개됐다-제러미 벤담, 신건수 역, 파놉티콘, 책세상, 2007.

## 2-3건축연구자들과의 공동 작업

푸코와 건축과의 직접적 조우는 건축학자들과의 두 번의 공동 작업이었다. 모두 『감시와 처벌』이 쓰이던 시기인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연구 방법을 취했다. 첫 작업은 철학자 들뢰즈(G. Deleuze)와 저서 『앙티 외디푸스』를 막 끝낸 정신분석학자 가타리(F. Guattari)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세미나에 푸코가 참여한 것이며 나중에 건축연구센터의 포르티에(B. Fortier)가 참석했다. 이 연구는 18세기 말 등장한 집합 시설 중 특히 의료 시설을 분석했으며 푸코의 글<sup>15)</sup>을 포함하는 책 『치료기계(Machines à guérir)』로 나왔다. 19세기의 한 의사(J. Tenon)의 표현인 치료 기계는 병원을 지칭하며 이 시설을 관통하는 과학적 지식들인 기후론, 인구학, 통계학, 위생학, 의학, 훈육논리 등의 성과들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권력 장치인 감시 기술, 지식생산기술, 권력생산기술 등이 만드는 배치 방식을, 그리고 이 둘의 결합양태를 드러냈다. 두 번째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론을 취했는데 대상은 19세기 전 반기의 주거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sup>16)</sup> 두 경우 모두 실제의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권력의 특정한 결합을 드러내곤 한 것이었다. 한편, 벤담이 구상한 파놉티콘이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감옥 외에 공동 주택과 병원이 포함된다는 점은 이 두 연구가 푸코에게는 『감시와 처벌』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공동 연구 이후 1982년의 대담까지 건축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통치성 차원의 도시와 지리의 공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테크네의 역사로서의 건축사 서술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도 유토피아의 공간도 아닌 ‘실제의 일반 공간 배치’를 다루고자 주문한 것이다. 즉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는 건축 역사서술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실제 건축을 분석하는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푸코의 관심은 그의 역사관의 스승인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리라 믿는 것을 해체하거나 진리 의지가 만들어내는 권력-지식의 결합양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역사

서술과 관련될 수 있는 실제의 복잡한 사실 관계에 대한 언급은 푸코가 인간 그 자체에 대해 연구하는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말년에서야 나타난다.

## 3. 푸코의 역사인식과 근대건축 서술의 문제

그런데 이렇듯 건축계의 관심과 거리를 둔 푸코의 입장으로 볼 경우 현재까지 쓰인 건축사 서술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건축 역사서술은 푸코의 역사 연구나 이론과 비교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건축계에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역사 전개를 했다면 푸코는 공간적인 서술, 즉 시기별 구별을 통해 이들 사이의 단절을 드러내고 각 층을 시간적 전개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봤다. 다음은 푸코의 저자(author/auteur) 개념 연구에 비추어볼 때 건축가의 동일성에 근거해 이루어진 건축 서술에 비판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사안은 건축 역사서술에 여러 상관 관계를 지녀 복잡한 실태를 풀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레비나우와 푸코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1. 공간적인 역사 vs 시간의 역사

푸코의 회고에 의하면 헤테로토피아 강연 때 한 사르트르주의 심리학자가 “역사와 변전becoming은 혁명적인 반면, 공간은 반동적이며 자본주의적”이라며 역사에서 진보를 배제한 공간적 이해를 공격했다고 한다.<sup>17)</sup> 이는 당대 널리 퍼져있던 마르크스주의적이며 동시에 사르트르적인 시간적 역사인식을 푸코가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 인식은 역사가 특정의 목적성을 띄고 진행되거나 사르트르의 경우처럼 결정론을 거부할지라도 자유 혹은 해방이라는 진행 방향이 있는 선형적인 흐름을 의미한다.<sup>18)</sup> 반면 푸코는 인식틀(Epistémé)을 통해 『말과 사물』에서 서양의 역사를 여러 시기로 끊어낸 것처럼 연구 전반에서 역사를 단절로 파악해 특정의 한 시기를 다른 시기와 분리했다. 그리고 이런 이질적인 개별 층 내부에 특정하게 자리 잡은 담론, 지식-권력 혹은 관계로 분석했거나 할 수 있었다. 이들 여러 층들을 가로지르며 사물들(les choses)이 다르게 인식되고 인간을 특정하게 생산하는 장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고 보는 푸코는 이들 각 층이 쌓이며 생긴 것, 즉 지층처럼 이루어진 역사를 생각했다. 그

15) Michel Foucault, et al., “La politique de la santé au XVIIIe siècle”, in *Les Machines à guérir, Aux origines de l'hôpital moderne ; dossiers et documents*, Paris, Institut de l'environnement, 1976, pp. 11-21.

16) Michel Foucault(direction) & Collège de France, Equipe de recherches de la chaire d'histoire des systèmes de pensée, *Politiques de l'habitat : 1800-1850*, CORDA, 1977.

17)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in 『헤테로토피아』, ibid, p. 87.

18) Ibid, pp. 87-88; 폴 벤즈,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ibid, pp. 469-479.

래서 그의 관심은 역사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적 역사 법칙이나 시대정신(Zeitgeist)이 아니며, 특정시기의 사람들이 다른 방식이 아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역사적인 선형(a priori historique)이다.<sup>19)</sup> 즉, 추상화된 철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널리 사용된 실제적인 것(Practice/Pratique)을 분석하여 각 개인이 자유롭게 말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담론 체계 그리고 그와 결합된 권력을 드러냈고 마지막에는 이런 외적인 것들과 관련된 인간들의 내적 태도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이런 방식의 역사 분석을 통해 푸코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를 쓴 것이다. 반면 역사를 시간적 흐름의 필연적인 무언가로 본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묘사한다는 구실로 그것을 이상화하는 데 활용되는 막연하고도 고상한 스타일”이며 “현실적으로 연속되는 실제적인 것들의 서로 다르고 울퉁불퉁한 윤곽을 감추는 영성하게 덮게 씌운 것”인 이데올로기이다.<sup>20)</sup> “그(푸코)는 마르크스도 프로이트도 닮지 않았다. 실제적인 것은 (프로이트의 이드와 달리) 하나의 심급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생산관계와 달리) 하나의 원동력도 아니다. 덧붙이자면 푸코에게는 심급도 원동력도 없다.”<sup>21)</sup> 결과적으로 그가 한 것은 실제적인 것에 대해 “막연하고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예리하게 그 윤곽들을 그리려고 시도했다.”<sup>22)</sup>

한편, 근대건축 역사서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독일의 예술사 전통은 이런 푸코의 관점과 배치(背馳)된다. 이 전통에 내재된, “예술은 그 자체의 생명과 역사가 있다”라는 부르크하르트(J. Burckhardt)의 관점<sup>23)</sup>은 결국 근대건축운동을 건축의 독자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인 시대정신을 담은 사건으로 해석하도록 이끌었으며 오랫동안 건축사서술에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이 운동을 건축역사 흐름에서 큰 발전으로 취급한 초기의 3인의 근대건축역사가들(웍스너N. Pevsner, 카우프만E. Kaufmann, 기디온S. Giedion)의 서술은 이후에도 지속

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전후세대 역사가들이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근대건축운동을 새로운 시대를 추동한 실체로서 규정하는 것에는 다르지 않았다. 이런 메타서사의 역사가 고유한 흐름과 당위성의 가치를 제시하려했다면 푸코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은 이데올로기가 된다. 근대건축 서술이 상당부분 기대고 있는 20세기 초의 근대 건축가들의 선언들은 아직 담론의 질서로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으로, 다른 담론의 장(예를 들면 보자르Beaux-arts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덜 일관적이며 이들 사이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왜냐하면 정교화되거나 체계화되기 전인 이런 “이데올로기는 합리화이며 이상화이기 때문이다.”<sup>24)</sup> 역사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정당화하는 과녁에 맞추어서 역사를 서술하려 했던 것이며 그러면서 고도화된 담론을 형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타푸리의 이데올로기(푸코와는 다른 의미) 비판<sup>25)</sup>과 80년대 전후로 소위 포스트모던의 역사 인식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건축 역사서술은 위기를 맞았고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했다. 그 이후의 건축 서술에 있어서 단선적인 역사 서술 대신 복수적인 서술이나 서구중심의 건축역사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모더니즘건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의나 타자의 복권이 부각됐다. 즉, 제 3세계의 건축 소개에 비중을 두거나 페미니스트 관점의 근대건축 이해가 등장했다. 푸코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때는 리오타르(J.-F. Lyotard)의 총체성 거부 선언<sup>26)</sup>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포스트모던의 관점이 막 등장하던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그가 제안한 방식은 이 흐름의 일부로 환원하기 힘들다.

이 시기에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논쟁은 역사 인식에 대한 여러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논쟁에 대한 푸코의 언급이 직접적인 역사서술과 관계는 없지만 결국 역사서술의 쟁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이후 나타난 건축 서술과 비교된 푸코의 입장을 추적할 수 있다. 리오타르와 보드리야르(J. Baudrillard) 등이 포스트모던 논리를 제시하며 서구 사회의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로 대체하려 했다면 반면 이를 비판한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이론가들은 근대 이성에 대해 거의 같은 문

19) 이런 관점에서 푸코가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교수자리 이름을 “사유 체계의 역사(Histoire des systèmes de pensée)”라고 명명했을 때 사유pensée는 이성의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이 단어가 동사 생각하다(penser)의 수동 의미인 ‘생각된 것’으로 그가 다른 내용을 드러낸다.

20) 폴 벤즈,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ibid, p.468(부분 수정).

21) ibid, p. 469(부분 수정).

22) ibid, p. 468.

23) 부르크하르트가 한 이 말은 빌플린에 의해 체계화되어 다윈의 진화법칙에 버금가는 독자성을 지닌 것으로 만들었다.(데이비드 와트킨, 우동선 역, 『건축사학사』, 시공사, 1997, p. 22)

24) 폴 벤즈,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ibid, p. 470.

25) 타푸리에게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지배를 지배하는 체계와 관계된 것으로, 자본주의 시대의 건축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것이다.

26) 장-프랑수와 리오타르, 이현복 역, 『포스트 모던의 조건』, 시공사, 1992(1979).

제의식을 지니지만 이성의 비판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취급하여 근대를 미완성된 것으로 보면서 입장을 달리했다.<sup>27)</sup> 푸코는 1982년 인터뷰에서 이 두 진영과 자신의 차이를 언급했다. 우선 포스트모던의 입장에 대해 “막 주적으로 떠오른 대상(모더니즘)을 마치 그것이 늘 우리가 해방을 갈구하던 억압의 주된 형태로 지목하는 경향”<sup>28)</sup>으로 비판했다. 이런 생각은 역사학자 이거스(G. Iggers)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거스에 따르면 포스트모던 관점이 이전 역사서술 방식이 지닌 문제를 잘 지적했으나 역사서술 자체를 의문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역사서술에 미친 영향은 매우 한정됐다. 다시말해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합리적인 역사 담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과 허위의 개념을 의문시함으로써 목록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던져버리는 과오”를 범한 셈이다.<sup>29)</sup> 푸코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한 만큼 이성의 역할을 신뢰하는 입장에도 거리를 둔다. “이성을 제거해야만 할 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극히 위험한 만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도 우리를 비합리성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지극히 위험합니다.” 푸코는 칸트(E. Kant)나 베버(M. Webber)의 작업이 가져다 준 가치에 대해서 하버마스와 동의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의미로 한정한다. 즉 18세기 이래 철학과 비판적 사유의 이슈는 ‘당대’ 사용하는 이성의 정체, 효과, 한계, 위협에 관한 것으로 초월적인 이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sup>30)</sup> 만일 하버마스의 말처럼 이성의 비판적 사유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인종주의가 사회진화론이라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정식화된 것처럼 “합리성의 나선, 합리성의 회전문을 인정하는 일”인 셈이다.<sup>31)</sup> 결국 리오타르, 하버마스 그리고 푸코 사이에 공통

27) 이 논쟁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유정완·이삼출·민승기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문화과학사, 1996; 위르겐 하버마스,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文藝, 1994.

28) 폴 벤즈,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ibid.*, p. 79.

29) 조지 이거스, 임상우·김기봉 역, 『20세기 사학사』, 푸른 역사, 1998, p. 29.

30)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ibid.*, p. 79-80.

31) *Ibid.*, p. 80-81. 즉,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혹은 비판)의 이성과 주체의 이성은 분리하지만 푸코의 관점에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전자에게 부여된 초월적인 것은 후자 혹은 다른 비합리적 것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에게 초월적이지 않은 이성은 주어진 사회 내에서 생성되는 것이어서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 얻어진다고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하버마스, 위르겐,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ibid.*; 푸코, 미셸, 계몽이란 무엇인가, (미셸 푸코&위르겐 하버마스,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ibid.*, pp.177-200)

적으로 계몽적 모더니티를 비판하는 것을 공통된 입장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푸코는 포스트모던 건축의 역사회귀주의에 대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고 하버마스의 방식을 “어떠한 역사주의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유양식을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거부한 자신을 “니체주의자 혹은 (단절의) 역사주의자”로 본다.<sup>32)</sup>

건축 역사서술에서는 역사학 영역에서처럼 각각의 입장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공통의 비판지점(거대서사비판)에서처럼 조작적(*operative*)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프램톤(K. Frampton)이 자신의 책(『*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4판의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타푸리가 언급한 이데올로기적으로 도구화되지 않은 방식의 역사서술이란 매우 어렵다<sup>33)</sup>. 그럼에도 1980년대 이후 쓰인 책으로 널리 읽히는 그의 작업은 특별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의 입장은 하버마스의 ‘미완의 근대 프로젝트(*Unfinished modern project*)’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합리성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며 비평적 과정을 통해 근대 건축을 다층적으로 보고자 했다. 이런 접근은 푸코가 하버마스와의 가졌던 차이만큼 푸코의 공간적인 역사서술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프램톤은 거대 서사를 지양하지만 대신 잘게 쪼개진 복잡한 시간 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그가 한 역사 서술의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시간 분할 기준을 통한 비판적 역사 전개를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세부항목 역시 내적으로 각각 독자적인 시간적 흐름을 지니고 있어 동일한 시간을 다수의 이질적인 시간 파편들을 모아둔 것으로 그가 참여한 다른 역사서의 부채처럼 모자이크인 셈이다.<sup>34)</sup> 게다가 그가 추가한 마지막 장에서 보여준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쪼개진 역사들의 서술에 있어 건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건축물의 저자로서의 건축가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 역시 푸코의 입장과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그가 “저자란 무엇인가(*Qu'est-ce qu'un auteur ?*)”<sup>35)</sup>에서 문학에서의 저자를 언급한 내용과 비교하여 검토 될 수 있는 부분이다.

32) *Ibid.*, p. 82.

33) Kenneth Frampton, Preface to the Fourth Edition, *i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2007.

34) Kenneth Frampton, (general editor), *World Architecture: a critical Mosaic 1900-2000*, vol.I-X, 2000-2002.

35) 미셸 푸코, 장진역 역, 「저자란 무엇인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1990.

3-2 건축사서술에서 건축가

1980년대 이후 메타 역사의 선형적으로 건축사를 서술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가의 동일성과 건축 작품 기원으로서의 저자의 역할은 중요하게 취급된다. 즉 건축가는 내적으로 일관된 원리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서, 그 건축가의 건축 평가 심지어 건축이 만들어 낸 효과까지도 같은 방식을 취한다. 반면 건축가(저자) 평가에 대한 푸코의 관점은 르 꼬르뷔지에에 대한 당대 평가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이런 방식과의 차이를 잘 드러낸다. 1982년의 대답에서 푸코가 르 꼬르뷔지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이유는, 레비나우가 ‘해방(자유) 혹은 저항’을 표상하는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의 답에서 나왔다.

오늘날 우리는 그(르 꼬르뷔지에)를-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불필요할 정도로 잔인하게-일종의 은밀한 스탈린주의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선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사실 해방적인 효과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했던 수단들이 결국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별로 해방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풀이하는데, 나는 자유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사물의 구조에 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보장책은 자유입니다.<sup>36)</sup>

푸코는 여기서 르 꼬르뷔지에를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려는 해방의 건축 추구했으나 한계를 지닌 건축가로 여기며, 당시 르 꼬르뷔지에를 ‘은밀한 스탈린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을 비판했다. 당대의 비판은 지어진 건축안의 실제의 삶에 관한 문제까지도 건축가의 의도에 귀속시키면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의 해방의 건축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문제가 되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Cité)를 억압의 건축 장치로 규정하면서, 대규모 고층 주거를 제안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건설했던 르 꼬르뷔지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푸코에게 해방이나 억압은 건축으로 표현될 수 없는 실천의 문제이며, 아무리 건축으로 실현하려해도 결과는 실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건축과 실천의 간극에 대한 주제는 파놉티콘에서도 나타났던 것이기도 하다.

36) Ibid. p. 73.

37) 이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그가 제시한 다른 예는 당시 ‘실현된 유토피아(Une utopie réalisée)’라고 소개되는 고갱의 파밀리스테르이다. 명백하게 자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자집단에게 상당히 중요한 자율성을 담보하지만 동시에 출입에 관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인 면모가 보인다. 실제 파밀리스테르는 구조상 집단 압력과 혼욕을 위한 감옥과 같은 공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푸코가 말하듯 만일 이곳이 제약 없는 성의 실천공동체가 세워질 경우 자유의 장소가 될 것이다. (Ibid. p. 75)

레비나우가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듯이 “도면 그 자체로는 권력 관계를 기술하지 않는다.” 르 꼬르뷔지에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유토피아 같은 해방기계Liberating machine를 기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한다는 보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푸코는 건축이 자유의 행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은 이 둘이 수렴되어 일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건축 평가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실천과 결부 짓는 것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2015년 현재 파리에서 공연 중인 한 연극의 제목이 “그것은 르 꼬르뷔지에에 맞이다(C'est la faute à Le Corbusier)”이기도 하다.<sup>38)</sup>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건축가의 내적 동일성에 기반을 두어 결국 모든 공과(功過)를 건축가 한 사람에게 환원하여 책임 지우기 때문이다.

초기 근대건축 서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건축가를 바라보는 반면 근대운동을 긍정하는 시기여서 평가는 정반대였다. 몇몇의 건축가를 근대건축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웅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논리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인물이 차이가 나지만 (웍스너에게 르 꼬르뷔지에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카우프만에게는 중요하며 기디온에게는 앞의 두 사람이 공동으로 중요하게 취급한 아돌프 로스A. Loos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모두 근대건축운동을 긍정하는 데 동원된다.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되어 르 꼬르뷔지에가 르네상스의 부르넬레스키와 비교되거나(베네볼로) 다른 인물(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 L. Wright나 알바 알토A. Aalto 등)을 부각하는 방식(히치콕, 제비)이어서 여전히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원적인 역사관점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한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에 표현된 건축가의 이상(ideals)을 분석(피터 콜린스P. Collins)하거나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가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레이너 밴함R. Banham)했다.<sup>39)</sup> 최근의 역사서술에서는 소위 영웅은 사라졌지만, 건축사의 시간적인 흐름을 제시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평가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거나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동일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푸코가 문학에서의 저자 개념과 역할에 대한 글,

38) 이 연극의 내용은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이 진정서를 들고 시에 의해 지명된 두 명의 건축가를 통해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를 혹은 그로 상징되는 근대 건축가들을 비난하면서 재개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다.

39) 이 내용을 투르니키오티스가 상세하게 분석했다.(Panayotis Tournikiotis,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9)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푸코는 건축 평가에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저자 개념은 19세기 근대 문학과 함께 등장하며 특히 서구에서 본격화된 개념이다. 푸코에 따르면 한 개인의 고유 명사(이름)가 지명된 개인과 관계하는 것과 다르게 저자의 이름은 매우 기능적으로 작동한다. 즉, 한 저자의 여러 텍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저자의 지속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개념적·이론적·양식적 일관성을 부여하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이런 저자 개념을 통해 다른 저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고 그의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 경계를 형성하며 특유의 내적질서로 해석되고 가치를 부여받는다.<sup>40)</sup>

건축에서도 이런 저자의 기능이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 평가는 기본적으로 건축가의 내적 동일성에 기반을 둔다. 저자-건축가의 각 작품은 내적 발전과정의 질서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겨져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을 중심에 두고 이와 비교를 통해서 다른 작품들의 위계가 정해지며 그와 상이한 작업들은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인 의미만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런 저자의 이름은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데 “그것은 어떤 사회와 문화 내부에서 담론이 갖는 위상과 관계”한다. 관계된 담론의 장에 따라 텍스트들(작품들)의 위계는 상당히 변동되고 달라진다. 한동안 근대건축을 추앙하던 담론에서 공적을 부여받아 영웅시되던 르 꼬르뷔제가 68세대 건축가들의 담론에서 그리고 근대 공동 주택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자-건축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일 지니고 있음에도, 은밀한 스탈린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 4. 테크네로서의 건축사서술

앞서 본 것처럼 푸코는 시간적 질서를 전제한 서술과 저자-건축가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서술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건축은 인간관계의 반영이거나 반영되는 상호 연계(interconnection)적이라는 점에 기반을 둔다.<sup>41)</sup> 따라서 각 역사의 층에서 이 관계의 특정한 모습은 건축적 모습을 가능하게 하며 건축의 특성을 가져오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출발하는 건축사 서술은 건축가를 통한 내적 접근이나 건축 내부의 역사 시간과는 다른 외부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푸코의 이런 접근은 테크네의 개념으로 제시됐으며 그의

후기 연구와 연속된다.

##### 4-1 테크네의 의미와 인간 관계

푸코가 제시한 테크네로서 건축 이해와 역사서술의 대상은 ‘헤테로토피아’의 이질적인 바깥공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규율 장치로 상징되는 ‘유토피아’적인 권력기계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말년에 그가 천착하던 주제인 주체(*sujet*) 혹은 자기(*soi*) 그리고 이를 둘러싼 관계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공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글 “권력을 왜 연구 하는가 : 주체의 문제”에서 자신의 지속적인 핵심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주체였음을 밝혔다.<sup>42)</sup> 그에게 주체는 타인에 복종하는 주체(즉, 주체화 *assujettissement*로 형성된 주체)와 스스로 의식한 정체성과 결합된 주체로 나뉘는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으며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많은 경우 후자에만 초점을 두었고 푸코는 이를 거부했다)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주체로서 인간을 파악하는 주체가 그에게는 테크네 혹은 관리/통치(*government/gouvernement*)의 문제이다.

레비나우는 대답의 마지막에서 푸코에게 건축의 의미(건축이 과학 *science* 인지)를 묻는 질문을 했다. 푸코는 건축이라는 지식이 과학의 문턱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미성숙과학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유보하며 건축을 테크네로 보자고 주문했다.

그렇지만 통치 또한 테크놀로지의 함수입니다. 개인의 통치, 영혼의 통치, 자기에 의한 자기의 통치, 가족의 통치, 어린이의 통치 등등. 나는 누군가가 건축의 역사를,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테크네의 일반사 안에 자리 매긴다면, 엄밀 과학과 엄밀하지 않은 과학간의 대립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길잡이 개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sup>43)</sup>

이때 테크네는 그리스에서 지식(*Knowledge/connaissance*)을 의미하는 에피스테메 *ἐπιστήμη*(『말과 사물』에서의 정의와 다른 원래 그리스시대의 의미)와는 구분되어 실행하는 ‘술(術)’을 의미하는데 푸코는 통치술(관리술) 역시 테크네의 일종으로 본다. 푸코에게서 통치의 개념이 본격화 된 것은 “안전, 영토, 인구(*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콜레주 드 프랑스의 1977/1978년의 강연이다.<sup>44)</sup> 도시와 국가 차원의 통치에 관한 주제로 공간 배치가 어떻게 자유주의

40) 미셸 푸코, “저자란 무엇인가?”, *ibid.*, p. 249-250.

41)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ibid.*, p. 89. 이 둘 사이의 우선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42) Michel Foucault, “Pourquoi étudier le pouvoir: La question du sujet”, in 『Dits et Ecrits IV』, p. 223.

43)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ibid.*, p. 93.

44) 이 강연록은 책으로 나왔다.(미셸 푸코, 『안전 인구 영토』, 오트르망 역, 난장, 2011)

와 결합되었는지를 다루면서 근대 통치 공간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통치 개념은 이후, 제목과는 달리 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관계의 테크네를 다룬 『성의 역사 2·3』을 거치면서 확대되어 그리스의 3가지 윤리인, 자기관리(양생술 *diététique*), 가정관리(가정관리술 *économique*)<sup>45)</sup>, 연인관리(연애술 *Erotique*-선택적 파트너인 소년들과의 동성에 관계)를 통해 자기, 아내/가정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로 옮겨간다.<sup>46)</sup> 그런데 이런 관리술(혹은 통치술)은 자기의식이나 주체적 자아의 입장에서 다루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장(場)으로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테크네이며 에피스테메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의도적으로 주체대신에 자기(*soi*)를 사용하여 『성의 역사 3』의 부제(자기 배려, *Le souci de soi*)를 정했다.<sup>47)</sup> 그런데 이런 관계 관리술의 일반사 속에 어떻게 건축의 역사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

#### 4-2 테크네의 건축과 건축사 서술의 가능성

역사적으로 담론들이 지층지어 다르게 형성되어 왔고 권력의 배치도 다르게 이루어져왔듯이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도 차이를 지니며 각 시기별로 다를 것이다. 푸코가 보는 테크네로서의 건축은 “사람들을 공간 안에 일정하게 할당하고 그들의 이동에 특정한 경로를 부여하며 사람들 간 상호 관계를 코드화하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간 배치로 “사회관계의 장에 개입해 일군의 특수한 효과를 낳는” 것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 특정한 요소의 도입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이며 반대로 이런 기술이 등장하도록 “인간관계의 작용과 전략(*the play and strategy of human relations*)”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8)</sup>

45) 이 단어의 원어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로 가정을 의미하는 Oikos와 법률을 의미하는 Nomos의 결합으로 말 그대로 가정관리술을 의미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이 단어의 현재어인 Economy는 경제 그 자체만을 지칭한다.

46) 푸코가 이 시기 그리스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문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목통치술 이전의 예술적 존재로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 즉 존재 예술 혹은 존재 미학에 연구 때문이다.(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ibid.*, p.25 과 «Une esthétique de l'existence» (entretien avec A. Fontana), *in Dits Ecrits tome IV texte n°357*)

47) 푸코가 여러 권의 성의 역사에 관한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초기 계획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달라졌지만 2·3권에서 그리스·로마시기를 분석했다면 그 이후시기를 연구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4년 사망 당시 한 권이 더 저술했는데 사후 출간 금지의 유언으로 출간되지 않았다.(디디에 에리봉, 박정자 역, 미셸 푸코 1926-1984, 그린비, 2012, p. 551-562)

그런데 지금까지 푸코가 말한 테크네의 역사를 표방하며 쓰인 건축서는 없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도시의 공간과 관련하여 쓴 리처드 세넷의 『살과 돌』<sup>49)</sup>은 건축에 관한 글은 아니지만 서문에 언급되었듯이 푸코에게 영감을 받아 쓴 글이며, 사람이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신체를 대하는 방식과 그를 에워싼 공간의 변화를 통해 설명했다. 근대 도시에서 익명의 공간인 광장의 등장, 개인적 편안함(*comfort*)을 위해 등장한 소파(*sofa*),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정신적 거리감이 드러난 열차의 배치 등은 주목할 만하다. 보다 직접적으로 건축을 다룬 저서는 모니크 엘렙의 『사생활의 건축-집과 심성』이다.<sup>50)</sup> 정신분석학 기반의 심성(망탈리테)의 관점에서 쓰인 이 책은 상당히 푸코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인의 심성의 변화와 주거 건축의 변화를 연관지어 서술하는데 심성의 내용은 자기 관계(*le rapport à soi*)와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부르주아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주거 공간배치의 변화는 인상적이다. 이 책과 푸코와의 관계는 푸코와 친분이 있었던 역사학자 미셸 페로(M. Perrot)가 쓴 서문에 주거 배치를 주인/하인, 남편/아내,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는 대목에서 분명해진다.

그런데 푸코의 입장을 따라갈 경우 건축사서술에서 테크네의 개념은 단지 길잡이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역사서술을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간의 역사 대신 공간의 역사, 즉 인간관계와 건축의 특정 결합을 지닌 지층을 나누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구분을 하려면 건축적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축 내부만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건축배치에도 대응된 인간관계의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 사이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즉 특정 인간관계의 조건이 객체화되는 방식은 무한하게 건축화 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판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이

48) 푸코, 미셸, “공간, 지식, 권력”, *ibid.*, p. 88-89(부분 수정). 푸코는 중세 가옥의 구조에서 난방방식의 변화, 즉 벽난로와 연결된 굴뚝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졌으며 이는 인간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예를 든다.(*ibid.*, p. 89)

49) 리처드 세넷, 임동근·박대영·노권형 역, 『살과 돌 - 서양문명에서의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 1999.

50) Monique Eleb avec Anne Debarre, 『Architecture de la vie privée-Maisons et mentalités, XVIIème-XIXème siècles』, Paris, Hazan, AAM, 1989.

에 결부되는 또 다른 문제는 비록 건축가를 내적 동일성으로 파악하지 않더라도 건축가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특수성의 의미와 건축 형성에 기여한 부분(예를 들면 르 꼬르뷔지에에게 근대건축의 모든 공과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가 기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 5. 결론

건축을 일종의 테크네로 본다는 것은 메타서사나 건축가의 동일성을 전제한 역사서술방식과 다르다. 그리고 타자의 역사를 부각하거나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서술 혹은 비판적인 서술 방식과도 다르다. 테크네의 일반사에 자리 잡은 건축의 역사는 시간적인 단절의 각층에서 인간관계의 양태를 통해 건축을 바라보는 외부적인 것이다. 그러나 건축이 사람의 모든 관계 형성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외적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전히 푸코가 제시한 개념을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난제가 있지만 건축사가들이 현재까지 걸어온 길과 다른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관계의 객체화로서의 건축은 실제적인 것이어서 추상화된 가치를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사를 각각 시기별 등장하는 소위 거장 건축가들을 연결하면서 이들 사이의 찬동·계승 혹은 거부·반발의 선형적인 서술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사와 괴리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 역사를 넓은 범위의 역사 전개와 결부하여 볼 수 있다. 게다가 무한히 분할 할 수밖에 없는 병렬적인 소문자역사들의 집합대신, 통일적인 역사서술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현상을 묶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건축과 건축가들은 그 시대별 등장하는 역사적 지층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건축 요소들은 한 시대의 배치질서에서 새로운 위계로 자리 잡기에, 이전과 같은 요소일지라도 그 시대에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으로써 건축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생성하거나 비현실적인 서사를 가진다기보다는, 숨겨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이 연결된 빙산의 일각처럼, 그것이 자리한 지층에서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 References

1. 리오타르, 장-프랑수아, 유정완·이삼출·민승기 역,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1992.
2. 벤즈, 폴, 이상길·김현경 역,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 in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의 부록, 새물결, 2004.
3. 벤즈, 폴, 이상길 역, 『푸코, 사유와 인간』, 산책자,

- 2009.
4. 벤담, 제러미, 신건수 역, 파놉티콘, 책세상, 2007.
5. 세넷, 리차드, 임동근·박대영·노권형 역 『살과 돌 - 서양문명에서의 육체와 도시』, 문화과학사, 1999.
6. 에리봉, 디디에, 박정자 역, 미셸 푸코 1926-1984, 그린비, 2012.
7. 와트킨, 데이비드, 우동선 역, 『건축사학사』, 시공사, 1997.
8. 이거스, 조지, 임상우·김기봉 역, 『20세기 사학사』, 푸른 역사, 1998.
9. 푸코, 미셸,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출판, 2005.
10. 푸코, 미셸,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11. 푸코, 미셸, 장진역 역, 「저자란 무엇인가?」, (김현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지성사, 1990.
12. 푸코, 미셸, 문경자·신은영 역, 『성의 역사 2』, 나남출판, 2004.
13. 푸코, 미셸, 오토르망 역, 『안전 인구 영토』, 난장, 2011.
14. 푸코, 미셸,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나남출판, 2012.
15. 푸코, 미셸&하버마스, 위르겐, 정일준 편역,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새물결, 1999.
16. 하버마스, 위르겐,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 文藝, 2002.
17. Eleb, Monique avec Debarre, Anne, 『Architecture de la vie privée-Maisons et mentalités, XVIIème-XIXème siècles』, Paris, Hazan, AAM, 1989.
18. Foucault, Michel et al., L'impossible prison: Recherches sur le systeme penitentiaire au XIXe siecle, Edition du seuil, Paris, 1980.
19. Foucault, Michel et al., Les Machines à guérir, Aux origines de l'hôpital moderne ; dossiers et documents, Paris, Institut de l'environnement, 1976.
20. Foucault, Michel(direction) & Collège de France, E quipe de recherches de la chaire d'histoire des systè mes de pensée, Politiques de l'habitat : 1800-1850, CORDA, 1977.
21. Foucault, Michel, “Pourquoi etudier le pouvoir: La question du sujet”, in 『Dits et Ecrits IV』, p. 223.

Received (10.15.2014)

Revised (2.15.2015)

Accepted (2.28.2015)